



설타, 페넬루에 혼합재료, 2008

# 박환, 빈자(貧者)에게 바치는 헌사

6 서성륜(안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달동네를 박환만치 실감나게 그려낸 작가가 또 있을까? 그는 달동네를 가슴 짙하게 화면에 담아내고 있다. 비좁은 골목길 사이로 난 경사진 계단과 웅변, 비비람에 낡고 사은 담벼락, 피로를 이기지 못한 채 출고 있는 가문등, 미구멍이고 설긴 전깃줄, 낡은 흙집 등 모질게도 웅색한 풍경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 속에 어질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제구 시인의 표현처럼 “꽃보다 먼저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화려하고 웅장한 것에는 금세 현혹되지만 가난하고 조라한 것에는 불편해하는 습관이 있다. 우리의 기대를 일부러 저버리더라도 하듯이 그의 작품에는 화려하고 웅장한 것은 등장하지 않는다. 철저히 그런 기대를 저버린 채 가난과 고단함 속에서 살아가는 마을을 등장시킨다. 그 속의 거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불가항력적으로 가난에 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혹자는 충격을 넘어 낭패감을 받을 수도 있다. 필자 역시 그런 풍경을 보면서 대낮에 소나기를 만난 것처럼 작점이 당혹감을 느껴

야 했다. 시계를 과거로 돌려놓은 것처럼 갑자기 6, 70년대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다. 과거에는 익숙했던 것들이 왜 이렇게도 낯설고 불편하게 보이는 것일까? 솔직히 말하면 감각한 들만을 헤매는 성난 이리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

## 심란한 밤의 풍경

그의 작품은 거의 예외 없이 야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밤은 하루의 일과를 점고 후식하거나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이고 침묵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그곳에는 일 때문에 늦게 귀가하는 사람, 밤늦도록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 잠자리를 뒤척이는 사람, 겨울의 추위로 오들오들 떠는 사람 등등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한다.

야경은 연인들에겐 더없이 인연한 분위기를 조성해주나 그의 작품에선 웬지 서늘프게만 다가온다. 밤 풍경은 절박감을 한층 극대화하는 극적 효과마저 지니는 것 같다. 가난한 그가 밤을 택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 같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밤만큼 자신들의 고독함을 잘 용변해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의 그림에선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다. 오직 고요한, 아니 적막감이 화면을 뒤덮을 뿐이다. 밤과 달동네를 연관시키는 것만으로도 현실의 삶이 어떤지 극대화하고 있다.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연탄재들과 쓰레기, 그 흔한 개 한 마리조차 보기 어려운, 칙올한 분위기는 그의 작품을 마치 단숨에 삼켜버릴 것처럼 기세등등하다.

작가는 작품의 심란한 분위기를 가중시키기 위해 버려진 폐자재를 이용한다. 그의 모든 작품에 사용되는 구차한 행색의 베니어, 그러니까 이끼가 끼고 너털너털한 합판이 그것이다. 쓰레기통 속에 있어야 할 베니어가 그의 작품에는 없어선 안 될 필수품으로 애용되는데 그 재료는 자연이 만들어준 표정 때문에 그림을 더욱 무겁고 처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기존재료를 가져다 사용하니 별 어려움이 없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박환의 작업은 베니어를 전극을 돌아다니

며 모으고 가공하는 일은 논외로 하더라도 화면에 붙이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탄생한다. 가령 그가 지분의 기왓장을 표현한다고 할 때 거기에 나타나는 그라데이션은 혼합된 물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열까지 베니어판이 지닌 물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말을 바꾸면 낡은 색감에서 연한 색깔까지 모두 베니어의 물성에서 얻어진 것이라 얘기이다. 색깔을 입힌 베니어가 하나도 없다. 왜 그리처럼 철저하게 베니어의 물성에 의존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풍부한 명암자이를 얻기 위해 그가 얼마나 방방곡곡을 헤매며 많은 베니어판을 모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을씨년스런 기왓장과 낡아 지분의 질감 역시 베니어를 여러 차례 쌓아올려 얻어진 결과이다. 이렇게 물질의 고유함을 보존하면서도 사물의 섬세한 표정을 얻어내는 것이 박환 작업의 특성이자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의 그림을 보고 부유층에 대한 분노나 사회갈등 같은 사회비판을 떠올렸다면 그것은 박환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의 작품에는 가난의 시련 못지않게 실낱같은 희망의 자락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살타〉란 작품을 보면 직막한 가운데서도 짐집이 노랑 불빛이 흘러나온다. 밀집된 집 사이의 미약한 불빛이라고 그냥 흘러보낼 수도 있지만, 그 빛은 작품에서 중요한



고요, 페넬루에 혼합재료, 2008

미가 있다. 이 작은 불빛은 우리 미래를 밝히는 소망이고 기쁨을 상징하는 역할을 대신한다. 기아로스쿠로가 작품의 의미를 극적으로 바꾸어주고 있다.

〈고요〉에서는 집에서 흘러나온 빛 대신 가로등이 그 역할을 맡아주고 있다. 차가운 밤 공기까지 감돌아 동네는 외딴 섬같이 적막하지만 하다. 그러나 가로등의 노란 불빛이 집집이 비추고 있으며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있는 것 같다. 낡고 삭은 지붕과 불빛이 대조를 이루며 오묘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응색한 집이지만 어머니 무릎에 기대어 포근히 잠자는 아이를 생각하면 이것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웃집〉에서는 담장 너머로 자그마한 오두막집이 등장한다. 주위는 이미 칠푼 같은 어둠 속에 휩싸여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작은 희망을 그려내고 있다. 몇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언제라도 방긋 웃는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 가난이 이들을 옥죄고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집에는 웃음이 넘친다. 가로등의 노란 불빛이 출입구를 환하게 비추는 것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 진실상의 승리

현재는 고달프고 힘들지만 작은 소망들이 서로 힘이 되어가는 모습을 생각하며 작가는 오늘도 발품을 팔아 수줍은 베니어판을 깨끗이 청소하고 가다듬는다. 그리고 보면 벽화는 생기가 없는 마을에 희망을 불어넣으려는 작가이다. 그는 외롭고 지친 사람들,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그늘진 구석을 그리지만 그 속에는 그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미안함이 각인되어 있다. 누굴 탓하고 비난하기 전에 이웃의 한



서영호 인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저서로는 '한국 현대회화의 발전', '템블트의 기록한 상상력', '템블트의 기쁨', '미술포럼', '미술포럼에서 만난 허니닝'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우리 미술 100년'이 있다.

사람으로 그들을 꺼리고 있다. 눈물, 연민, 공황을 담아 희망으로 바꾸어보려는 점이 눈물겹게 다가온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그의 작품은 가난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현사랄 수 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뛰어난가 모사의 박진감이 있다고 해도 진실성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어쩌면 가난이 이들의 발목을 잡는다고 해도 이들 마음속의 희망마저 있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외형을 보고 속을 판단하지만, 작가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다. 작가는 화려한 외형보다는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기에 그의 그림은 건강하고 정직하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깊은 애정이 화면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그의 그림은 손끝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축출한 가슴으로 그려내고 할 수 있다.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했다. 그의 작품이 보는 이의 가슴을 후벼매는 것은 작품이 그만큼 깊은 호소력을 지녔다는 표시가 아닐까.

출처에 있는 벽화의 작업실을 다녀오는 길은 활기가 넘쳐 보였다. 차창으로 들어오는 풀냄새와 청풍, 들판을 뒤덮은 연초록의 용단, 부드러운 농선 위에 비추는 의기양양한 햇살 등등. 다소 무거워진 마음을 일기에 날려버리기에 좋은, 즐겁고 화창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자연은 이토록 아름답고 찬란하지만 벽화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두툼한 옷을 몇 겹이나 끼워 입고 봄날의 햇살이 비추기만을 희수고대한다. 따뜻한 햇살이 양지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풍풍인 그늘 속의 사람들에게도 비추어지길 소망해본다.